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위험선호 심리 및 강달러 압력 완화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408~1,422원

■ 앞서 발표된 미국 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한층 강화되었음. 이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와 강달러 흐름 완화를 반영하며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과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가능성도 하락 요인으로 판단됨.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약세 흐름이 원화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상 저가 매수세도 낙폭을 제한. 이에 금일 달러/원 환율은 1,410 원대를 중심으로 등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

■ 전일 동향 : 12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5.5원 오른 1,418.5원 마감

장 초반, 예상 부합한 미 CPI 발표로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1,410원까지 하락. 그러나 물가 불안 잔존에 따른 달러 반등과 저가 매수세로 인해 상승 전환, 1,419.4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후 야간장에서 상승 흐름 이어졌으나, 미 PPI 둔화 소식에 연준 긴축 전망이 더욱 후퇴하자 1,410원대 후반으로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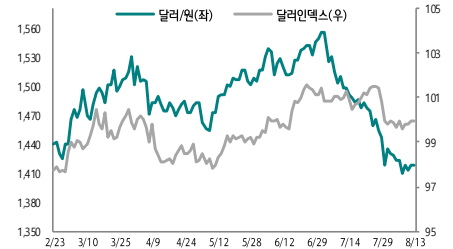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시장 전망을 밑돈 미국 도매물가와 정책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연준 인사의 발언에 약세를 보이던 달러는,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자 낙폭을 되돌림
- (유로-달러) 연준 동결 기대가 힘을 얻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ECB는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에 대응해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로화는 소폭 강세
- (달러-엔) 다카이치 총리의 금리인상 지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국 개입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 평가와 중동발 유가 불안 등이 겹치면서 엔화는 약세 흐름 이어감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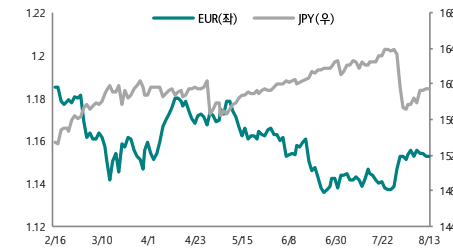
■ 최근 원화 환율이 1,400원 초반대에 안착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균형환율(Equilibrium Exchange Rate)' 수준이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균형환율이란 단기적인 외화 수급 조정을 넘어, 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에 부합하는 적정 환율을 의미함. 즉,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등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금리 격차 속에서도 잠재성장을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대내외 균형 상태의 환율을 일컬음. 문제는 이 균형환율을 단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임. 환율은 국가 간 물가 및 금리 차이, 경제 성장을 등 수많은 실물·금융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기 때문. 이러한 맥락에서 BIS의 실질실효환율지수를 통해 원화 가치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음. '26.6월 기준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83.06을 기록,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가깝게 저평가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이후 원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최근 수치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종합적으로 볼 때, 금리차와 예상 성장을 격차 등 주요 변수들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균형환율은 지금보다는 약간 낮은 1,300원 중반대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음. 복잡한 시장 변수로 인해 환율이 이론적 균형점에 완벽히 수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내외 여건이 점차 안정화된다면 환율 역시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17.5	1,426.0	1,410.8	1,418.6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29	159.50	6.7447
전일대비	+0.0003	+0.07	-0.0010
재정환율	1,638.48	891.08	210.64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7월 소매판매(MoM)	0.1%	0.2%
23:00	미국 8월 소비자신뢰	55.0	55.2

주요국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자료: BIS